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제재, EU·러시아】EU 정상회의(5.30~31), 부분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합의

【원유, 러시아】러시아 원유 업체, '13년 이래 최대 실적 달성

【물류, 중국】中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95.3% 까지 회복 등

【경제, 중국】6.1일부터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돌입 → 각종 경기부양책 → 경기 전망 회복세

【시멘트, 중국】중국 시멘트 수요·공급 동시 위축

【자동차, 중국】중국 정부, 연말까지 중소형 승용차 취득세 50% 인하

【설탕, 인도】인도, 설탕 수출제한 조치 발표

【금융·경제, 러시아】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3%p 인하 + 경기부양책 검토

【무역·통상, 미국·대만】美 USTR 대표, 이달초 대만 방문 가능성



GVC 뉴스 더하기

- 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공급망 관련 사항

- ② 美 인플레이션 동향 및 바이든 행정부 주요 대응 정책

- ③ EU·G7의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 노력



GVC 기초상식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GVC 돌보기

‘우라늄’(원자력발전소 연료) 품목 GVC 분석



GVC 전문가

게리 제레피(Gary Gereffi, 美 듀크대 교수) - ‘대전환 시대 탄력적 GVC 구축 : 한국에 대한 시사점’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자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지원 사업 안내
- ③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및 산업부 장관 ‘분석 센터’ 방문
- ④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역사로 보는 공급망 - 위기를 기회로! (그래픽)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원유·제재, EU·러시아】 EU 정상회의(5.30~31), 부분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합의

- EU 27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중단하는 對러 6차 제재에 합의함. 해상을 통한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전체의 2/3 수준임. 아울러, 연말까지 수입금지 비중을 90%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함. 다만,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입은 일시 예외로 허용함
 - 드루즈바 송유관은 러시아 동부~우크라이나~동유럽(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등)을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장 약 4,000km의 송유관으로서 하루 120~14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 수출 물량의 1/3을 담당 (나머지 2/3는 해상 수송)
-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쟁 무기 비용을 조달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라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설명함.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27개국이 제재를 공식 도입하면 러시아가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함
- 또한, EU 정상들은 이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제외하고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의 수신을 중단하는 데도 합의함
- EU의 對러 제재 합의안이 발표되자 국제 유가는 일제히 상승함.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5.31일 장중 배럴당 123.58달러까지 오름. 브렌트유가 120달러 선을 넘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3월 이후 두 달만임
-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한 6차 對러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EU는 분열 위기를 딛고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둠. 문제는 각 회원국들이 고유가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임. 또한 EU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서유럽 국가들은 비싼 대체 공급처를 구해야 하는 반면에,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송유관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평가임
 - 참고로, EU 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전략을 두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양보해서라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화파(독일, 프랑스 등)와 “러시아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전파(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
- 한편, 러시아도 천연가스를 무기로 EU에 대한 맞공세를 이어감. 네덜란드 천연가스 공급업체 가스테라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을 5.31일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힘

출처 : 로이터, 블룸버그, 한국경제,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 종합

● 【원유, 러시아】 러시아 원유 업체, '13년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유가 급등으로 인해 러시아 주요 원유 생산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 영향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약 10년만의 분기별 최고 수익으로 추정됨
- 러시아 에너지기업 Rosneft, Lukoil, Gazprom Neft의 1~3월 순이익은 88.6억 달러로 예상됨. 이는 Rosneft가 TNK-BP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상승한 '13년 3분기 이후 최고치임
-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일부 구매자들이 구매를 기피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이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우랄 원유를 대폭 할인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

출처 : BloombergNEF(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22.5.26)

● 【물류, 중국】 中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95.3%까지 회복 등

- 중국 교통운수부는 두달 간 봉쇄된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물류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밝힘
- ▲5.10일 전국 톨게이트·휴게소는 이미 정상화, ▲5월 마지막 주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95.3%까지 회복, ▲상하이 푸둥공항 일평균 화물물동량 80%까지 회복, ▲광저우 바이윈 공항 정상화, ▲5.24일 전국 도로화물유동량, 철도와 도로화물 운송량 각각 4.18일 대비 10.9%, 9.2%, 12.6% 증가, ▲전국 우편물·택배 일평균 업무량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지방정부의 톨게이트·휴게소 운영 중단 엄금, ▲물류허브의 정상 운영을 보장, ▲민생물자의 안정적 유통 확보, ▲‘화이트 리스트’에 따라 조업재개 지원, ▲기업부담 경감 등 정책·조치 지속적 강화가 당국의 방침

출처 : 新京報(5.26)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경제, 중국】 6.1일부터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 돌입 → 각종 경기부양책 → 경기 전망 회복세

- 6.1일부터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해제 단계로 진입함.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고·중위험구역 또는 봉쇄·관리구역을 제외하고 예방구역(防範區)의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을 제한하지 않음. 5.31일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는 15명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통제구역에는 19만명, 관리구역은 45만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체 상하이 인구 2,500만명의 대부분이 이동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기본적 운영’ 단계부터 회복하고, 외부로 이동하는 도로 역시 현행 통제 규정이 유지됨. 각 상점의 유동인구는 75% 수준으로 조정하고 예약제를 권장한다고 함. 대중교통, 공공장소 이용시 72시간 음성증명서는 필수임. 상하이 당국이 6.1일부터 ‘봉쇄 해제’가 아닌 ‘전면적 정상화 단계’라고 부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임
- 상하이시는 5.29일 8개 부문의 50가지 대책을 담은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하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소비, 고용보조금, 공과금 감면 등 지원책을 쏟아냄. 중국 관영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동 지원책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000억 위안(약 56조원)에 달한다고 함
- 중국 중앙정부도 5.23일 경기 부양을 위한 33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5.29일 지방정부에 배정된 3조 4,500억 위안(약 640조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6월말까지 마치고 8월말까지 모두 소진 하라고 지시함.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인프라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임
- 5.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6으로서 지난 4월(47.4), 시장 예측치(48.0)를 초과함. 5월 비제조업 PMI도 47.8로서 4월(41.9)보다 크게 개선됨. 다만, 두 지수 모두 여전히 기준선인 50 이하 수준임
 - PMI는 기업의 구매·인사 등 담당자 설문으로 조사하는 경기 동향 지표로서, 50이 기준선이며,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

출처 : 新華社, 이데일리, 한국경제, 서울신문 등 언론 종합

● 【시멘트, 중국】 중국 시멘트 수요·공급 동시 위축

- '22년 4월 중국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 급감한 1.95억 톤을 기록함. 인프라·부동산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는 4월 생산량이 2억 톤을 하회한 것은 '12년 이후 10년 만임
 - 4월 누계 생산량 5.81억 톤, 전년 동기대비 14.8% 감소
-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조치로 생산·운송 차질이 심화되었으며 인프라·부동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었다는 진단

- 이달 투자 회복세가 미진한데다 다수의 지역이 시멘트 감산을 추진하면서 5월 생산·판매량 두 자리 수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석탄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원가 부담이 가중(톤당 40~50위안 증가)되고 있으며 장마·태풍과 여름철 전력 사용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6~8월 생산 회복세도 기대하기 어려움. 다만, 업계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부동산 투자가 회복되면서 하반기 수요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출처 : 中國證券報(5.25)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자동차, 중국】 중국 정부, 연말까지 중소형 승용차의 취득세 50% 인하

- 중국 정부는 5.31일 6.1일부터 12.31일까지 배기량 2.0ℓ 이하이며 판매가(부가가치세 미포함) 30만 위안(약 5,571만원)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구매세)를 50% 인하(현재 10% → 5%)
 - 예를 들어 30만 위안의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1.5만 위안(약 278만원)을 절약할 수 있음. 중국 정부는 '09년과 '15년에 배기량 1.6ℓ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한 적은 있지만, 배기량 2.0ℓ 이하 승용차에 대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
- 상기 조치는 5.23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6개 분야 33개 경기부양 종합대책에 포함된 '차량 취득세 600억 위안 감면(약 11조원)을 구체화한 것으로 100~200만대의 신차 소비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

출처 : 중국 재정부, 이데일리 등 종합

● 【설탕, 인도】 인도, 설탕 수출제한 조치 발표

- 인도 대외무역국은 6.1일부터 설탕 관련 2개 품목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21.10월~'22.9월(1년간) 수출 물량을 1천만 톤으로 제한함. '22.6~10월 중 설탕 해외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 이는 자국내 설탕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임. 인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50만 톤에 대한 수출 계약은 마쳤으며 이 중 710만 톤은 기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21년 설탕 소비량은 129만톤(국내생산 118만 톤, 수입 11만 톤)이며, 인도산 수입량(5백 톤)은 수입 물량의 0.4%로서 국내 설탕 수급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출처 : 블룸버그(5.25), 농림축산식품부(5.25)

● 【금융·경제, 러시아】 러 중앙은행, 기준 금리 3%p 인하(14%→11%) + 경기부양책 검토

- 5.26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기존 14% 대비 3%를 낮춘 11%로 기준금리를 발표
 - '22년 1월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8%였으나, 2.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20%까지 높인 바 있음
- 한편,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8조 루블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현재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을 예고함. 또한 동 장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최대 1조 루블(약 20조원)의 초과세수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초과세수는 사회복지지출에 쓰일 것이라고 밝힘

출처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무역·통상, 미국·대만】 美 USTR 대표, 이달초 대만 방문 가능성

- 5.30일 대만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가 이르면 6월초 대만을 방문해 무역투자 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함.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만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은 양자 경제협정을 맺고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 6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바 있음

출처 : 블룸버그 등



GVC 뉴스 더하기 ①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공급망 관련 사항

※ 전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국내적으로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생활물가 전반의 상승으로 확산되어 가계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5.30(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함. 아래에서는 동 대책 중에서 공급망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개요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 * ①수입원가 절감, ②식료품비 인하, ③식재료비 경감, ④교육비 절감 ⑤교통·통신비 인하, ⑥이자부담 완화, ⑦취약계층 지원, ⑧보유세 완화, ⑨거래세 완화, ⑩금융접근성 제고
-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대 프로젝트'의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확인 가능

● '10대 프로젝트' 중 공급망 관련 내용

① (수입원가 절감)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과세환율 인하 →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할당관세) 산업원자재 7종*, 식품원료 7종*에 대해 할당관세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기간 연장
 - * 나프타·나프타 원유(0.5→0%, ~9월말), 산업용 요소(0% 연장), 망간메탈·페로크롬(2.0→0%), 전해액첨가제(6.5→0%), 인산이암모늄(6.5→0%)
 - **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9월말),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 연장), 사료용 근채류(물량 +30만톤)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면제 → 원가 약 9% 인하
- (수입 과세환율 인하)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환율을 '외국판매도율'에서 '기준환율'(약1% 낮음)로 변경

②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원료비 지원) 밀가루,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 (밀가루)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체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 최소화
 - * (사료)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 : 시중금리(2.9%) 대비 저리 용자(1.0%) 공급을 위한 이차보전
 - *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1,801억원)
 - * (가공·외식업체)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용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최대 외식업 6억원, 가공업 50억원, 금리 1.5~2.0%)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40~65% → 50~75%)
- (어민 경유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 * 기준단가(1,10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를 5개월간(22.6~10월) 한시 지원

③ (차량·교통비)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

- (승용차 개별소비세)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限)을 6개월 연장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지원기간 2개월 연장
 - * 기준가격 하향조정(1,850원/ℓ → 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



GVC 뉴스 더하기 ②: 美 인플레이션 동향 및 바이든 행정부 주요 대응 정책

※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대두, 미국 또한 '22.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 상승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美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확보 등 물가안정 대책과 對中관세 완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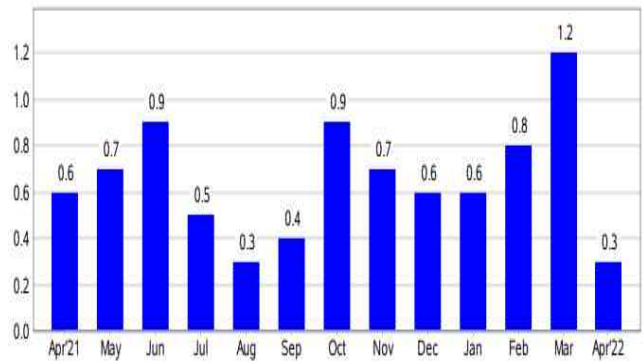
- 미국 노동부, 전년 동월 대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3% 상승 발표, 40여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3월(8.5%)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으나 기존 WSJ 등 전문가 전망치 8.1%보다는 큰 폭의 상승률
 - 식품·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onsumer Price Index)는 전월보다는 0.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보다는 6.2% 오른 것으로 집계

〈 미국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1965-2022) 〉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뉴욕타임즈)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2021.4~2022.4) 〉 (단위: %)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 4월 미국 CPI 상승 주요 요인은 식품, 에너지, 자동차, 항공운임

- (식품) 17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보다 0.9%, 전년 대비 9.4% 상승했고, 베이커리와 육류·계란 가격은 전월보다 각각 1.1%, 1.4% 상승하여 전년 동월대비 10.3%, 14.3% 상승
- (에너지) 휘발유 가격의 6.1% 하락에 힘입어 전월 대비 2.7%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30.3% 상승
- (자동차)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전달 대비 0.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22.7% 상승, 신차 가격은 전달 대비 1.1%, 전년 대비 13.2% 상승으로 물가 상승 견인
- (항공운임) 전월 대비 18.6%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3% 높아짐

●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주요 대응 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 마련을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로 거듭 강조하며 연방 준비제도과 더불어 **재정적자 관리 방안 계획 발표**
 - The Biden-Harris Inflation Plan: Lowering Costs and Lowering the Deficit (백악관, 5.10)
-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 위해 리사 쿡(Lisa Cook) 연준 이사*를 임명하고 **금리 인상과 관련한 연준의 독립성 보장과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를 강조
 - * 미시간 주립대 경제학자 겸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무부,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등 근무
- 아울러, 미국 내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가정의 **일상 비용 절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방면으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노력을 경주

〈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Inflation Plan) 요약 〉

분야	주요 내용	비고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절감	•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100만 배럴 방출, 동맹국 및 협력국 석유 수출량 확보, 바이오 연료(E15) 사용 확대 등	에너지 독립성 확보
	• 청정에너지 및 차량 세금 공제 확대, 청정에너지 혁신 가속화 촉구, 국내 청정에너지 및 청정 운송 공급망 강화	
	• 차량 연비 표준 발전,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자동차 장려 등	
일상 비용 절감	• 가족 보험료 세금 공제, 인플레이션 가격과 비교한 제약회사 물가 안정, 의회 처방약 비용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제안	세계 식량 위기 대응, 물가 안정 등 일상 비용 절감 노력
	• 미국 농산물 공급 안정화, 육류 및 사육조류 가공 불법 가격 담합 단속, COVID-19 중소기업 및 농업 종사자 구호금 제공	
	• 인프라, 공급망 병목 현상 해결 노력, 팬데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요 상품에 대한 신규 투자 촉진	
	• 아이 돌봄(Child Care) 및 장기 요양비용 절감, 보육 투자 확대	
	•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 재정 확대 노력(별도 성명 발표)	

출처 : 백악관 성명 보도자료(STATEMENTS AND RELEASE)

●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 對中관세 완화 방안도 검토 중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금년 7월에 만료되는 연간 3천억 달러 이상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완화를 '고물가 해소' 차원에서 검토 중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셔먼 로빈슨)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상호 간에 고율 관세를 제거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3%p 내릴 것으로 전망
- (상공회의소 및 기타 다국적기업 그룹 등) 관세 인하 지지자들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 인플레이션을 1%p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최근 추정치 발표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를 포함해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인하가 최우선 수단은 아니며 회의적인 태도 견지
- (류장 주미 중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WSJ과 인터뷰에서 對中 고율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미국인들의 생활비를 증가시켰다며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 (언론사 폴리티코) 이번 결정이 국내 정치나 여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

● 현지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 공급망 문제는 라-우 사태로 심화되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국내 최우선 과제(top domestic priority)로 규정하며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및 對中관세 완화를 검토 중

- 무엇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외적으로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對中관세 완화 옵션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라이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對中관세가 중요하지만, 또한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도 함께 작용

- 한편 미국 CPI는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분석이 다수, 인플레이션 고착화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바, 향후 경제 동향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전반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주목해야 함

- 바이든 행정부의 잇따른 대응 발표에도 일반 무연 휘발유 1갤런당 가격이 \$4.48에 달하는 등 유가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품 및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문제는 고착화 추세
- 골드만삭스는 소비 지출 둔화 추세를 지적,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를 2.9%에서 2.5%로, 올해 전망치 2.6%에서 2.4%, 내년 전망치 2.2%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 안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 발생 확률 약 15%, 2년 내 약 35% 확률로 경기침체 가능성을 전망



GVC 뉴스 더하기 ③ : EU·G7의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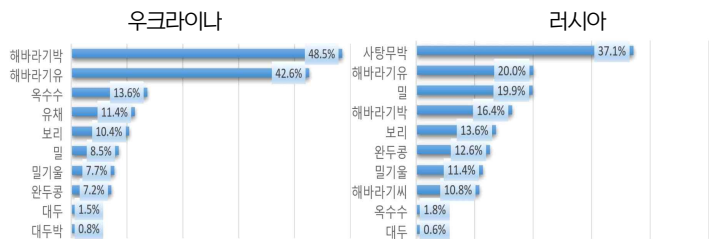
※ 러·우 전쟁의 장기화 및 이상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속출. 이와 관련 EU, G7 등 주요국의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 노력을 살펴보자

●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품 수출 제한 국가도 증가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유지류 수출 차질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대두

- (우크라이나 국제교역시장 점유율(18년~20년 평균))
해바라기박(49%), 해바라기유(43%), 옥수수(14%), 보리(10%), 밀(9%) 등
- (러시아 국제교역시장 점유율(18년~20년 평균))
밀(20%), 보리(14%), 옥수수(2%) 등

〈 3년간 러·우의 농산물 세계 시장 점유율(18년~20년 기준) 〉



(자료: FAO STAT 활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작성)

-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 부족 전망으로 식량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

〈주요 식품 수출제한 국가 목록 (22.6.1일 기준)〉

국가	물품	규제
인도	밀, 설탕	수출금지
아르헨티나	소고기, 대두유	수출금지 / 수출제한 및 수출세 부과
러시아	포도씨유, 설탕, 해바라기씨, 밀 포함 곡물/해바라기씨유	수출금지 / 수출제한 및 수출세 부과
우크라이나	밀 포함 곡물, 설탕 / 가금류, 계란, 해바라기씨유	수출금지 / 수출제한 및 수출세 부과
이집트	식물성 오일, 옥수수, 콩, 밀 포함 2곡물	수출금지
이란	감자, 가지, 토마토, 양파	수출금지
파키스탄	설탕	수출금지
카자흐스탄	설탕, 해바라기씨, 밀	수출금지
터키	육류, 버터, 요리유, 올리브유, 렌틸콩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및 수출세 부과

(출처: 국제 식량 정책연구소)

- 밀 생산국 2위인 인도 또한 폭염에 따른 피해로 밀 수출금지에 합류하며,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반적인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7·EU, 글로벌 식량 안보 동맹 결성 및 식량 안보 대응 노력

- 5.19일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협력을 위해 G7국, EU집행위, 노르웨이, 덴마크, 아프리카연합, 유엔기구 참여 동맹 결성 (G7 개발장관회의)

- 5.12일 G7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해 논의, 아날레나 베어북 독일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2,500만톤의 곡물이 묶여 있음을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글로벌 이슈에 따른 식량위기로 지구촌을 분열시키는 것이 푸틴의 목표”라 발언

〈5.19일 G7 개발장관회의〉



(출처: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 EU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육상 대체 물류 경로인 ‘연대 노선’ 및 물류 플랫폼을 구축 중

● 시사점

- 최근 세계 각국의 식량무기화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주요국·권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곡물가격 상승세는 '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상황이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른 식품 수출 제한 역시 지속 존재, 우리 정부는 '21년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 등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 중
- (생각해 보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우려(가수요·사재기 등)는 없던 문제도 만들어 낼 수 있음



GVC 기초 상식 :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 '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보고서와 지난 4.13일 美 재무장관 재닛 옐런의 연설에서 “프렌드쇼어링”이 공통으로 언급됨. 앞으로 GVC에서 중요한 개념이 될 “프렌드쇼어링”에 대해 알아보자

-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란 신뢰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의미함**
 -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은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함(4.13일, Atlantic Council에서의 연설 중)
 -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통제,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통제 등 특정 자원 보유국이 원자재·기술·생산품을 활용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프렌드쇼어링이 필요
- **프렌드쇼어링은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에 이어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 보니 글릭(Bonnie Glick)이 2020년 언급한 “allied-shoring”에서 비롯되었음**
 - GVC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1990~2008년),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되며 해외로 생산처를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활발해짐
 - 전문화, 특화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이 큰 글로벌 공급망은 ‘저비용, 고효율’에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VC의 성장이 둔화되고(2008년~)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며 해외에서 국내로 자회사, 생산 공장을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가속화
 -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온 미국은 코로나19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을 깨닫게 되며 공급망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
 - 효율(JIT)보다 안정(JIC)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국내 공급망 강화에 관심
 - 그러나 국가별 리쇼어링은 오히려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 비용 절감에 적합한 오프쇼어링과 경제안보에 유리한 리쇼어링의 중간 개념으로써 allied-shoring이 등장
 - 이후 '21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당 개념을 “friend-shoring”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됨
- **향후 미국은 프렌드쇼어링 구축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전망**
 - 미국은 현재 USICA(미국혁신경쟁법안) 등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 내 신경제협력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음
 - 쿼드를 통한 동맹국간 희토류 산업 협력 추진에 이어, 지난 5월에는 ASEAN국가 등 총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
 -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통상이슈 중심의 협력체로, 완전한 형태의 프렌드쇼어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IPEF(현재 14개국 참여)에는 미국 외에도 13개국(5.27일 피지 참여 발표)이 있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협의에 기반한 모듈형 협정이므로 향후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함**

GVC 돋보기 : '우라늄'(원자력발전소 연료) 품목 GVC 분석

※ 최근 美 에너지부(DOE)가 러시아산 우라늄의 수입금지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원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우라늄 공급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우리나라의 우라늄 공급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우라늄의 특징

- 생산 순위 : ① 카자흐스탄(19,477t, 41%), ② 호주(6,203t, 13%), ③ 나미비아(5,413t, 11%) / ⑦ 러시아(2,846t, 6%)
- 천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약간씩 성질이 다른 동위원소들이 섞여 있는데 U238(99.3%), U235(0.7%), U234(0.005%)이며 이중 U235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음



● 원전 연료의 선행-후행 주기(GVC)

- (국내 원전의 노형) '22년 현재 국내에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이 중 월성 2~4호기 등 3기는 중수로 원전이며, 나머지 21기는 모두 경수로 원전
- (경수형 연료) 해외(광석→정광→변환→농축) → 국내수입
 - 한수원은 해외에서 우라늄 정광을 구매하여 해외(다국적기업)에서 변환→농축을 거친 후 국내에 수입
- (중수형 연료) 해외(광석→정광→변환) → 국내수입
 - 한수원에서 농축이 불필요한 우라늄 정광을 캐나다로부터 수입

선행핵주기(Front-end Nuclear Fuel Cycle)

- 원전에 사용되기 전까지 연료생산의 모든 과정

후행핵주기(Back-end Nuclear Fuel Cycle)

- 원전에 사용된 이후부터 핵연료 관리의 모든 과정



주기	공정 개요
정광	우라늄 광석을 정련하여 추출한 우라늄 정광(U3O8)
변환	(경수형 연료)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에 용이한 기체화합물(UF6)로 바꾸는 공정 (중수형 연료) 천연 우라늄 정광 분말의 화학적 변환공정(U3O8 ⇒ UO2)
농축	변환된 천연우라늄의 구성물질(U238 99.3% + U235 0.7%)중 핵분열성물질인 U235의 함유량을 0.7% 이상으로 높이는 공정
성형가공	우라늄을 펠렛 형태로 소결·압축하여 연료집합체를 제조하는 공정

※ 한국수력원자력(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회사)이 ① 해외(다국적기업)에 우라늄 정광 형태로, ② 국내에 원전연료 (농축우라늄 등) 형태로, 수년 치를 보유(①+②)하고 있는 만큼 연료 조달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



GVC 전문가 : 게리 제레피(Gary Gereffi, 美 듀크대 교수)

- '대전환시대 탄력적 GVC 구축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산업연구원(KIET)은 「월간 KIET 산업경제」를 통해 해외 석학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있음. '22.4월호에는 미국 듀크대 '글로벌 가치사슬센터'의 소장(05~현재, 설립자)인 게리 제레피(Gary Gereffi) 교수의 공급망과 한국에 대한 글이 게재되었는 바, 아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GVC의 지역 내 생산·조달·혁신 허브로서의 아시아 지역

-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산업의 GVC 생산, 공급 및 혁신 허브로 부상
 - △개도국의 저비용 생산, 규모의 경제, 기술력·전문성 공급업체 + △한국·일본·대만 등의 핵심 부품·장비
 -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전역의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 등 심화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장점을 보유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부상 중
-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분쟁은 21세기초 글로벌 경제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전조 현상
 - 갈등의 기저에는 양국의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전세계적 이익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과 발전전략 경쟁이 있음
 - 양국 기업은 디지털경제의 핵심 동인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 (구글&바이두, 아마존&알리바바, 페이스북&텐센트)

● 한국과 디지털경제 : 스마트폰 GVC의 사례

- 삼성은 대부분 자체 하드웨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관련 품목을 내재화하고 있음
 - 삼성의 부품 원가(BOM Cost)를 살펴보면, 갤럭시 S9+의 총부품 원가 중 삼성 계열사(내재화 비율)와 국내 협력사(본국 비율)가 각각 36%와 42%를 차지하고 있어 부문 간 GVC의 내재화와 현지화 수준이 매우 높음
- 삼성은 OS/서비스 분야에서는 구글이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선제적 도입과 애플에 대항한 대규모의 마케팅은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의 위상을 강화한 기반
 - 자체 OS 개발, 갤럭시스토어 등도 시도했으나, 역설적으로 안드로이드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함

●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 구축 및 모색은 더욱 확대될 전망
 -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리쇼어링과 자국내 필수품 생산을 통해 공급망 내재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대
 - 다른 대안으로 니어쇼어링(near shoring) 또는 지역 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공급망 축소 및 공급망 다변화가 제기
- 해외생산, 공급확보 및 혁신 네트워크의 이점은 여전히 매우 큰 바,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재세계화 또는 GVC 재편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국 정책 당국자와 기업의 결정에 중국의 영향력 또한 지속될 전망
 - 세 가지 차원의 탄력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 (①기업 차원, ②글로벌 산업 및 GVC 차원, ③국가 차원)
- 향후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과 비슷하게 상향식·하향식의 고도화되고 통합된 형태의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정부나 기업이 산업정책에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생각해보기) 국가·산업·기업의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임.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여전히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

☞ 미-중 갈등 속에서 무조건적인 All or Nothing(양자택일) 전략이 아니라, 제품·서비스·기술에 따라 어떻게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지방 등에는 어떤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바야흐로 큰 그림과 전략이 중요한 시점임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펀드로 100만~1,000만원 지원(국고지원 비중: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VAT포함)
-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물류 검색'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삼성 SDS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해상운송] 로스앤젤레스 수출 중소기업 항공·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대한항공·밸류링크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및 전용 선박 마련을 통해 운송 지원(~'22년 6월)

〈 항공 - 항차 정보 〉

도착지	출항지	출항일	신청마감일	선적 물량
Los Angeles, CA	부산	6월 14일(화)	6월 7일(화)	3FEU

〈 해상 - 출항 정보 〉

출항예정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 (상세내용) [대한항공 공동 "회원사 항공운송 지원사업"\(클릭\)](#) 또는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754 / hjo117@kita.net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년 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박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박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社は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 ▶ 도착지 확대: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GVC 소식통 ③ : 경제안보 세미나 개최 및 산업부 장관 분석센터 방문

● 2022년 경제안보 유관기관 공동세미나 개최 (주제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이슈와 대응)

- 일시 및 장소 : '22.6.2(목) 14:00~19:00,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 참석 :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최측은 유튜브라이브로 참석할 것을 권유(하단 주소 중 택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https://www.youtube.com/watch?v=VJwiQvHr7u4
• 산업연구원 (KIET)	https://www.youtube.com/watch?v=KUz74rO_hYU
• 전략물자관리원 (KOSTI)	https://www.youtube.com/watch?v=b5xVgMEH2s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https://www.youtube.com/watch?v=8Qt3rG_3tM8

시간	세션	주제	발표(20분)
14:15 ~ 15:00	①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향과 전망 좌 장 : 서진교 선임연구위원(KIEP) 토론자 : 김양희 부장(국립외교원), 백서인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TF 연원호 위원장
15:00 ~ 15:45	② 공급망	GSC(글로벌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좌 장 : 이시욱 교수(KDI School) 토론자 : 김동수 실장(산업연구원), 이봉길 박사(무역협회)	산업연구원(KIET) 산업통상연구본부 김계환 본부장
16:00 ~ 16:45	③ 수출통제	국제 수출통제 동향과 주요 이슈 좌 장 : 정인교 교수(인하대학교) 토론자 : 박효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장용준 교수(경희대학교)	전략물자관리원(KOSTI) 무역안보연구센터 채수홍 센터장
16:45 ~ 17:30	④ 특허기술	기술안보와 비밀특허 좌 장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토론자 : 이동규 실장(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류태규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김시열 박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 (22.5.27)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5.27(금) 한국무역협회 방문(구자열 회장 면담 등) 계기에 트레이드 타워 47층에 위치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의 산업분석실(무역협회가 담당)을 방문하여, 공급망 영향 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함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22.2.9 출범)는 ①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②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가 담당), ③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가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약 30개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수집, 이슈·품목 분석을 진행하여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앞줄 좌측 첫 번째(이창양 장관), 두 번째(조상현 분석센터장)

좌측(이상은 종합전략실장 겸 '인사이트' 편집장), 우측(이창양 장관)



GVC 소식통 ④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

-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과 우리 반도체 기업간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 (일시) 1:1 온라인 상담회 5월 19일(목)~6월 10일(금) / 웨비나 6월 2일(목), 15:30~17:30
 - (신청기한) 6월 3일(금)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1)신청서 작성 및 2)기업 영문 카탈로그 zip파일로 첨부
 - (프로그램) [웨비나] 한-네 반도체 산업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장비 분야 협력 포럼 [1:1 상담회] Sioux Technologies, AimValley B.V. 등 반도체 설계 및 R&D 협력 가능 네덜란드 바이어 10개사(잠정)와 1:1 온라인 상담회 진행
 - (상세내용) [KOTRA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비즈니스 상담회\(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조민수 사원 ☎ 02-3460-7645 / postiposty@kotra.or.kr

웨비나 접속 QR



● GP Plaza in Beijing

-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가전부품 등 국내 전기전자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 (일시) 6월 30일(목)~7월 8일(금)
 - 6.30일 온-오프라인 바이어 초청 상담회&홍보 진행, 이후 온라인 상담 진행
 - (신청기한) 6월 7일(화)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GP Plaza in Beijing\(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1)신청서 작성 및 2)기업 카탈로그(중국어/한국어 버전)를 zip파일로 첨부
 - (프로그램) [세미나] 한중 수교 30주년, 공급망 이슈 대응과 한-중 전자전기 산업동향 [1:1 상담회]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가전부품 등 전자전기 분야 주요 중국 바이어들과의 1:1 온라인 상담 주선 [전시&홍보] 제품 샘플 전시(샘플 송부 가능시), 동영상 및 카탈로그 홍보
 - (상세내용) [KOTRA GP Plaza in Beijing\(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소재부품장비팀 기승하 사원 ☎ 02-3460-7639 / cindy9749@kotra.or.kr

● 2022 한-유럽 K-Wind Energy 상담회

- 유럽 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
 - (일시) 6월 23일(목)~30일(목) 16:00~19:00
 - (신청기한) 6월 3일(금)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유럽 K-Wind Energy 상담회\(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1)신청서 작성 및 2)기업 영문 카탈로그를 zip파일로 첨부
 - (상세내용) [KOTRA 한-유럽 K-Wind Energy 상담회\(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그린산업팀 김경은 대리 ☎ 02-3460-7489 / ca678dy@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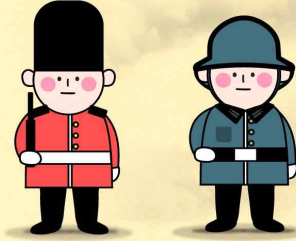
더 찾아보기 : 역사로 보는 공급망 - 위기를 기회로! (그래픽)

1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영국

역사 속에서 보는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1차 세계대전 개전과 동시에 국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영국과 독일은 화약과 비료 부족 사태를 맞게 되었으나, 현명한 공급망 위기 대처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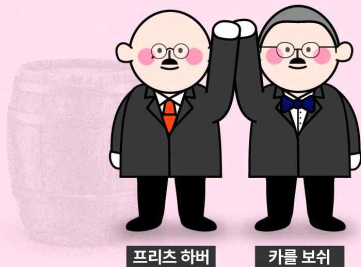
Since 1914



* 당시 화약과 비료는 칠레 초석을 원료로 생산함

공급망 위기 대처 사례 - 독일

독일함대가 1914년 12월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에 의해 격파당하자 독일은 화약이 부족해 패전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프리트 하버

카를 보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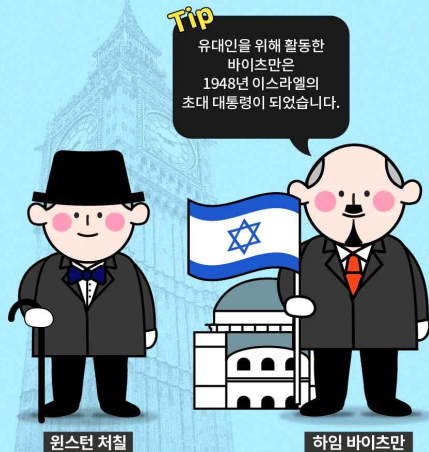
하버-보쉬 공법 개발을 통해 공급망 위기 극복

칼스루헤 대학교수였던 프리츠 하버는 공기중의 질소를 뽑아내어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화학기업인 BASF의 카를 보쉬는 이를 산업화시켜 하버-보쉬 공법으로 화약과 비료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버-보쉬 공법 | 암모니아를 화약과 비료로 전환하는 암모니아 합성공법으로, 하버와 보쉬의 이름을 따 지었다.

공급망 위기 대처 사례 - 영국

영국은 화약의 원재료인 아세톤의 원료 광물을 적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입해왔으나, 전쟁으로 수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윈스턴 처칠

하임 바이츠만

Tip

유대인을 위해 활동한 바이츠만은 1948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수입의 국산화

영국 정부는 아세톤의 대체 제조법을 공모, 유대인 화학자인 하임 바이츠만은 녹말(옥수수)을 발효시켜 아세톤 제조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해군성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은 즉시 사업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옥수수 수입이 어려워지자 자국산 마로니에 열매를 원료로, 아세톤과 코다이트 화약을 자국생산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위기, 기회로 만들어라!

공급망 위기 대응으로 영국은 승전국으로 부상하고, 유대인을 위해 활동한 바이츠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 및 규제 정비를 통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한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전지산업협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언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6. 1. 수)

[환율]

	'20.12.31	'21.12.31	'22.4.30	'22.5.27	'22.5.30	'22.5.31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55.90	1,256.20	1,238.60	1,237.20	-0.11%	+5.22%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256.60	1,239.20	1,237.40	-0.15%	+5.08%
₩/CNY	166.04	186.51	192.06	187.67	186.14	185.67	-0.25%	+2.32%
₩/Y100	1,051.19	1,032.48	964.30	989.91	974.43	967.77	-0.68%	-5.23%
Y/U\$	103.34	115.14	130.24	126.90	127.11	127.84	+0.57%	+11.02%
U\$/EUR	1.2279	1.1318	1.0544	1.0746	1.0761	1.0741	-0.19%	-5.34%
CNY/U\$	6.5305	6.3681	6.5975	6.7358	6.6510	6.6520	+0.02%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5.27 (전일)	'22.5.30			
					전일(5.27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12.40	113.80	▲1.40 +1.2%	▲63.75 +127.4%	▲36.68 +47.6%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34.50	136.60	▲2.10 +1.6%	▲49.33 +56.5%	▲15.85 +13.1%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520.50	▲137.50 +1.5%	▲1765.00 +22.8%	▼171.50 -1.8%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863.00	▲40.00 +1.4%	▲911.50 +46.7%	▲57.00 +2.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9,975.00	▲2,125.00 +7.6%	▲14,068.00 +88.4%	▲9,050.00 +43.2%

[반도체]

	'20	'21	'22.2	'22.3	'22.4	5.26	5.27	5.30	5월(~30)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88	3.75	3.47	3.40	3.39	3.39	3.43
(%, YoY)	-21.9	+8.0	-0.6	-11.00	-25.1	-22.1	-22.5	-23.3	-23.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65	7.98	8.18	8.28	8.28	8.28	8.24
(%, YoY)	+7.0	+32.8	+33.1	+33.9	+34.5	+32.7	+32.7	+31.1	+33.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5.6	'22.5.13	'22.5.20	'22.5.27		
						전주(5.20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163.74	4147.83	4162.69	4175.35	+0.3%	-17.3%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4.29	'22.5.24	'22.5.25	'22.5.26	'22.5.27		
							전일(5.26비)	'21년말비
BDI	2217	2404	3253	3127	2933	2681	-8.6%	+20.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